

2021년 10-2

KIET 경제산업동향

2021. 10

산 업 연 구 원
동향·통계분석본부

< 차례 >

< 요약 >	1
1. 해외경제	3
2. 실물경제	6
3. 국내금융	8
4. 산업별 동향	10
5. 고용	12
6. 수출입	13
< 부록 >	
2022년 한국경제 전망 : 3% 성장을 위한 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21.10월)]	16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18

< 요약 >

□ 해외경제 : 주요국 실물지표 부진세, 中 3분기 성장률 4.9%로 하락

- 미국은 9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경제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연준의 테이퍼링 개시와 부채한도 조정 이슈 등이 리스크로 작용
- 일본은 8월 실물지표들이 감소세를 나타낸 가운데 경기선행지수가 전월과 달리 급락하고, 유로존은 역대 경제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체감지수가 하락 전환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진입
- 중국은 9월 공급 지표들이 둔화세를 보인 반면, 수요 지표들이 확대되는 등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3분기 성장률이 2020.3분기 이후 1년 만에 최저
- 달러화는 10월 들어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일시 상향안이 합의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호조 등에 금융시장이 안정되면서 주요국 통화 대비 약세
- 유가는 10월 초 산유국들의 생산 유지 결정과 미국 원유재고 감소세 지속, 달러화 약세 전환 등으로 80달러대로 오르면서 2014.10월 이후 최고

□ 국내경기 : 8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2%, 소비·투자 동반 감소

- 8월 전산업생산은 건설업(전월비 1.6%)에서 5개월 만에 증가한 반면, 광공업(-0.7%)과 서비스업(-0.6%)에서 동반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0.2% 감소
 - 소매판매는 내구재와 비내구재 판매의 동반 감소로 전월비 0.8% 감소하고,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감소하면서 5.1%나 감소

□ 금 융 : 9월 기업대출·가계대출 증가세 유지, 10월 중순(10.12~10.25일) 금리 상승 및 원/달러 하락 전환

- 9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전체 규모의 증가폭도 전월과 비슷한 수준이고,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 포함 시)도 기타대출 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

- 국고채(3년) 금리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최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이 인플레이 강화를 시사하면서 상승 기조를 유지
- 원/달러 환율은 월초에 상승세를 보이다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일시 상향 합의와 기업들의 실적 호조 등으로 위험자산 수요가 회복되면서 하락세

□ 산업별 동향 : 8월 제조업생산·서비스업생산 전년동월비 증가 유지

- 제조업생산은 반도체와 1차금속 등에서 두 자릿수 증가하고, 화학제품과 자동차 등 상당수 업종에서 동반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비 10.1% 증가
 - 제조업ICT과 중공업에서 두 자릿수 증가, 경공업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도소매와 운수·창고,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에서 증가함에 따라 4.4% 증가
 - ICT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비 6.6% 증가, 전월비 기준 2.1% 감소

□ 고용 : 9월 전산업 취업자 수 기준 전년동월비 2.5% 증가

- 9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된 영향에도 제조업에서 감소세 둔화가 이어지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증가세 확대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5개월 만에 최고치(1.9% → 2.5%)

□ 수출입 : 9월 수출 +16.7%, 수입 +31.0%, 무역흑자 42억 달러

- 지난 9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6.7% 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은 31.0% 증가한 516억 달러로, 무역흑자 규모는 42억 달러를 기록
- 수출이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전년동월비 -2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중간재 품목들과 디스플레이·무선통신기기·컴퓨터 등 IT관련 품목들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월별 무역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 규모를 기록

1. 해외경제

□ 미국 : 9월 경제지표 혼조세, 테이퍼링·부채한도 관련 리스크 주목

○ 9월중 생산 감소와 소비 둔화 등 실물지표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체감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지면서 경기 여건의 불안정성을 반영. 연말 연준의 테이퍼링 개시와 부채한도 조정 관련 대립 등이 주요 리스크로 부상

- 산업생산이 허리케인 아이다 영향과 반도체 부족에 따른 자동차 감산 등이 지속되면서 전월비 감소세가 확대된 반면, 소매판매가 공급망 문제로 인한 재고 부족에도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소폭의 증가세 유지
- 체감지표는 ISM 제조업지수가 고용과 공급자 인도, 재고 등에서 동반 상승한 데 힘입어 2개월 연속 상승한 반면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미래 기대지수가 2020.11월 이후 최저치(86.6)로 떨어지면서 4개월 연속 하락
-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증가가 올 들어 최소폭(+19.4만개)에 그친 반면에, 실업률이 3개월 연속 하락하고, 경기선행지수는 7개월 연속 상승세
- 연말 연준(Fed)의 테이퍼링 개시가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조정과 관련된 양당의 협상 타결 여부 등이 주요 리스크로 작용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GDP, 연율) (전년동기비, %)	2.3	-3.4	6.3 (0.5)	6.7 (12.2)	-				
산업생산 (IT생산)	-0.8 (3.9)	-7.2 (7.1)	1.0 (3.2)	1.6 (3.7)	1.1 (-0.1)	0.5 (-0.7)	1.0 (-0.4)	-0.1 (0.0)	-1.3 (0.6)
내구재수주	3.5	-13.6	5.5	3.0	-	0.8	0.5	1.8	-
소매판매	3.3	0.3	8.0	6.5	-0.7	0.9	-1.6	0.9	0.7
소비자물가	1.8	1.2	0.9	2.0	1.6	0.9	0.5	0.3	0.4
실업률(%)	3.7	8.1	6.2	5.9	5.3	5.9	5.4	5.2	4.8
무역수지(10억US\$)	-576.3	-676.7	-206.1	-208.4	-	-73.2	-70.3	-73.3	-
ISM 제조업지수 ¹⁾	51.3	52.5	61.4	60.8	60.2	60.6	59.5	59.9	61.1
소비자신뢰지수 ²⁾	128.3	100.9	96.1	62.3	62.6	128.9	125.1	115.2	109.3
경기선행지수 ³⁾	111.5	106.1	110.6	114.4	117.1	115.4	116.4	117.3	117.5

자료 : 美 상무부, 노동부, 연준, 컨퍼런스 보드, 공급자관리협회(ISM).

주 1) 기준선인 50을 상회하면 경기 확장, 하회하면 경기 수축을 각각 의미함.

2) 1985년=100, 3) 2016년=100.

□ 일본 : 8월 실물지표 감소세, 선행지수 급락으로 경기 둔화세 우려

- 지난 8월 생산과 수주, 소비 등 주요 실물지표들이 동반 감소세를 보이고, 수출 둔화와 수입 증대가 이어지면서 무역수지도 3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실물경기 여건의 둔화 조짐으로 인해 日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할 가능성이 제기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실질GDP)	0.0	-4.7	2.8	-1.1	0.5				
광공업생산	-2.7	-10.6	5.7	2.8	1.2	-6.5	6.5	-1.5	-3.6
민간기계수주	-0.9	-8.5	12.9	-5.3	4.6	7.8	-1.5	0.9	-2.4
소매판매	0.1	-3.5	0.1	0.4	-2.1	-0.3	3.1	1.0	-4.0
소비자물가	0.5	0.0	-0.6	0.5	-0.5	0.3	0.3	0.2	-0.2
실업률(%)	2.4	2.8	3.0	2.8	2.9	3.0	2.9	2.8	2.8
무역수지(10억엔)	-1,668	563	1,959	542	434	-193	379	436	-637
경기선행지수 ¹⁾	93.8	88.6	96.2	99.7	103.4	102.6	104.2	104.1	101.8

자료 : 日 내각부, 경제산업성, 재무성, 총무성 등.

주 1) 2015년=100.

□ 중국 : 9월 공급 지표 둔화세, 3분기 성장률 2020.3분기 이후 최저

- 9월 생산과 투자 등 공급 지표들이 전월보다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에, 소비와 수출 등 수요 지표들의 증가세가 전월보다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비교적 완만한 흐름. 3분기 경제성장률은 내·외수 지표들의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2020.3분기 이후 1년 만에 최저 수준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6월	7월	8월	9월
국내총생산(실질GDP)	6.0	2.3	18.3	7.9	4.9				
산업생산	5.7	2.8	24.6	9.0	4.9	8.3	6.4	5.3	3.1
고정투자(누계기준)	5.4	2.9	30.3	12.6	7.3	12.6	10.3	8.9	7.3
소매판매	8.0	-3.9	34.0	14.1	5.1	12.1	8.5	2.5	4.4
소비자물가	2.9	2.5	0.0	1.1	0.8	1.1	1.0	0.8	0.7
수출(달러화기준)	0.5	3.6	48.7	30.3	24.4	31.8	19.0	25.6	28.1

자료 : 중국 국가통계국.

□ 유로존 : 8월 실물지표 혼조 지속,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 진입

- 8월 생산 감소와 소비 증가 등 실물지표들의 혼조세가 이어진 가운데 역내 경기체감지수가 7개월 만에 하락 전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에너지 가격의 급등 여파로 2011.11월 이후 최고치로 오르면서 인플레이 우려 가중

유로존의 주요 경제지표

(전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국내총생산(실질GDP)	1.4	-6.5	-0.4	-0.3	2.2				
산업생산	-1.4	-8.5	4.4	1.2	0.1	-1.1	0.2	1.4	-1.6
소매판매	2.4	-1.0	-1.2	-1.3	3.9	4.2	1.9	-2.6	0.3
소비자물가(전년동기비)	1.2	0.3	-0.3	1.1	1.8	2.0	1.9	2.2	3.0
무역수지(10억유로)	220.5	234.6	84.0	56.9	44.5	12.0	17.5	20.7	4.8
경기체감지수 ¹⁾	103.7	88.2	91.4	95.3	114.3	114.5	117.9	119.0	117.6

자료 : 유로통계청(Eurostat), 유로중앙은행(ECB) 등.

주 1) 2000년=100.

□ 국제금융·유가 : 달러화 약세 전환 & 유가 7년 만에 최고치

- 달러화는 10월 들어 미 의회가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에 대한 한시적 인상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가운데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화로 위험자산 수요가 일부 회복되면서 소폭 약세로 전환
- 유가는 10월 초 산유국들의 생산 동결에 이어 미국 정부가 전략비축유 방출 계획이 없다는 발표와 함께 미국 원유재고 감소 지속과 달러화 약세 전환 등의 다수 상승 요인들로 인해 2014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

주요 국제가격

(기말기준, %, 달러/배럴)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25일
엔/달러	104.68	106.57	110.72	109.31	109.58	111.11	109.72	110.02	111.29	113.71
달러/유로	1.2136	1.2075	1.1730	1.2020	1.2227	1.1858	1.1870	1.1809	1.1580	1.1608
미 국채 (10년만기)	1.07	1.40	1.74	1.63	1.59	1.47	1.22	1.31	1.49	1.63
WTI유	52.2	61.5	59.2	63.6	66.3	73.5	74.0	68.5	75.0	84.3
두바이유	54.3	63.1	62.4	64.5	66.6	73.0	73.3	69.4	75.9	82.9

자료 : 한국은행, 「국제금융속보」.

2. 실물경제

□ 국내경기 : 8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2%, 소비·투자 동반 감소

○ 8월 전산업생산은 건설업(1.6%)에서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반면에, 광공업과 서비스업에서 동반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전월비 0.2% 감소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전월비 3.5%) 등에서 확대됨에도 기계장비(-2.1%)와 화학제품(-1.0%) 등에서 감소한 여파로 0.7% 감소하고, 서비스업생산도 숙박·음식점(-5.0%) 등에서 감소세가 이어짐에 따라 0.6% 감소

국내 실물경제 지표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4/4	1/4	2/4	5월	6월	7월	8월
GDP성장률	2.2	-0.9*	-1.1* (1.1*)	1.9* (1.7*)	6.0* (0.8*)	-	-	-	-
민간소비(국민계정)	2.1	-5.0*	-6.6* (-1.3*)	1.2* (1.2*)	3.7* (3.6*)	-	-	-	-
설비투자(국민계정)	-6.6	7.1*	6.1* (-0.6*)	12.4* (6.1*)	12.8* (1.1*)	-	-	-	-
건설투자(국민계정)	-1.7	-0.4*	-2.9* (3.5*)	-1.8* (1.3*)	-1.2* (-2.3*)	-	-	-	-
전산업생산지수	1.0	-1.2	-1.5 (1.6)	2.7 (1.7)	7.2* (0.4*)	6.9 (-0.2)	6.4* (1.6*)	4.5* (-0.6*)	6.0* (-0.2*)
광공업생산지수	0.4	-0.4	0.0 (2.9)	4.4 (3.4)	12.7* (-1.2*)	14.5 (-1.3)	11.5 (2.3)	7.7* (0.2*)	9.6* (-0.7*)
제조업생산지수	0.5	-0.3	-0.1 (3.1)	4.4 (3.4)	13.2* (-1.2*)	14.8 (-1.7)	11.8 (2.5)	7.3* (-0.2*)	10.1* (-0.4*)
서비스업생산지수	1.4	-2.0	-2.0 (0.9)	2.2 (0.7)	5.7* (1.7*)	4.2 (-0.4)	4.9 (1.6)	4.0* (0.1*)	4.4* (-0.6*)
소매판매액지수	2.4	-0.2	-1.2 (0.9)	6.4 (1.7)	4.4* (2.7*)	3.1 (-1.8)	1.6 (1.4)	7.9* (-0.5*)	3.8* (-0.8*)
설비투자지수	-5.7	6.0	2.8 (0.8)	11.9 (6.9)	12.7* (0.7*)	11.2 (-2.6)	10.6 (0.2)	10.9* (2.0*)	11.8* (-5.1*)
건설기성액	-2.3	-4.1	-5.3 (2.5)	-7.2 (-3.6)	-5.3* (-2.4*)	-6.8 (-2.9)	-5.6 (-0.7)	-8.0* (-1.8*)	0.3* (1.6*)
동행종합지수(2015=100)	112.0	112.3	113.6	114.4	116.6*	116.6	116.8*	117.0*	117.2*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100.3	98.8	99.4	99.7	101.2*	101.2	101.2*	101.3*	101.3*
선행종합지수(2015=100)	114.6	119.5	122.5	124.7	127.1*	127.2	127.9*	128.1*	128.2*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99.1	99.6	100.7	101.6	102.5*	102.5	102.8*	102.7*	102.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는 잠정치, **는 속보치.

2) 전산업생산지수는 농림어업 제외.

- 소매판매는 의복 등 준내구재(전월비 1.8%) 판매가 증가세로 전환된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0%) 판매가 다시 감소하고, 승용차 등 내구재(-0.1%) 판매도 3개월 연속 감소함에 따라 전월비 0.8% 감소
- 설비투자는 기계류(전월비 -4.3%)와 운송장비(-7.7%)에 대한 투자가 동반 감소한 여파로 인해 큰 폭 감소(-5.1%)한 반면에, 건설기성액(불변)은 건축(1.1%)과 토목(3.1%) 공사 실적이 동반 증가하면서 1.6% 증가
- 동행종합지수는 내수출하지수와 건설기성액 등이 감소한 반면, 광공업 생산과 비농림어업취업자 등이 증가하면서 전월비 0.2% 상승(7개월 연속)하고, 선행종합지수도 수출입물가비율과 재고순환지표 등이 감소함에도 코스피지수, 건설수주액 등이 증가하면서 0.1% 상승(17개월 연속)

□ 물가 : 9월 생산자물가 전월비 0.2% 상승, 전년동월비 7.5% 상승

- 9월 소비자물가는 교통(전월비 -0.2%)과 교육(-0.2%), 보건(-0.1%) 등에서 소폭 하락한 반면, 식료품·비주류음료(2.1%), 주택·수도·전기·연료(2.2%), 음식·숙박(0.2%) 등에서 상승한 영향으로 전월비 0.5% 상승(전년동월비 2.5%)
- 지난 9월 생산자물가는 농림수산물(전월비 -0.8%)이 3개월 만에 하락하고, 공산품(0.3%)과 서비스(0.0%)도 전월보다 상승폭이 동반 둔화되면서 전월비 상승률이 0.2%로 하락(전년동월비 7.5%, 2011년 5월 이후 최고치)

국내 주요 물가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소비자물가	0.4	0.5	1.1 (1.2)	2.5 (0.5)	2.6 (0.8)	2.3 (0.2)	2.6 (0.1)	2.4 (-0.1)	2.6 (0.2)	2.6 (0.6)	2.5 (0.5)
근원물가	0.9	0.7	0.9 (0.6)	1.4 (0.6)	1.8 (0.5)	1.4 (0.3)	1.5 (0.3)	1.5 (0.1)	1.7 (0.1)	1.8 (0.3)	1.9 (0.3)
생산자물가	0.0	-0.5	2.4 (2.6)	6.4 (2.5)	7.4 (2.0)	6.0 (1.0)	6.6 (0.5)	6.6 (0.5)	7.4 (1.0)	7.4 (0.5)	7.5* (0.2*)
근원물가	0.1	-0.1	2.4 (2.0)	6.0 (2.7)	7.2 (1.8)	5.6 (1.2)	6.2 (0.6)	6.4 (0.5)	7.0 (0.9)	7.3 (0.5)	7.4* (0.2*)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주 1) ()안은 전기(월)비 증가율.

2) 소비자물가의 근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 생산자물가의 근원물가는 식료품 및 에너지 이외 지수를 각각 의미.

3. 국내금융

□ 기업자금·가계대출 : 9월 기업대출·가계대출 증가세 유지

- 9월 국내 은행들의 기업대출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전월 수준의 증가 규모를 유지하면서 전체 증가폭이 전월과 비슷한 수준
(21.8월 +7.9조원 → 21.9월 +7.7조원, 대기업 +0.3조원, 중소기업 +7.4조원)
 - 대기업 대출은 분기말 일시상환에도 운전자금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전월 수준의 소폭 증가세를 유지
 - 중소기업 대출도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데다, 시설자금 수요 확대가 이어지면서 전월 수준의 증가 규모가 지속
- 회사채는 금리 상승 예상에 따른 선발행 수요 등으로 순발행 전환
(21.8월 -0.2조원 → 21.9월 +2.0조원)
- CP는 순상환 규모가 전월보다 더 확대
(21.8월 -0.2조원 → 21.9월 -1.3조원)
- 주식발행 규모는 기업공개(IPO)가 줄어들면서 소폭 증가
(21.8월 +6.6조원 → 21.9월 +1.8조원)

기업 자금조달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9월말 잔액
	1~9월	9월	1~9월	9월	1~9월	7월	8월	9월	
■은행 원화대출	37.7	4.9	97.1	5.0	72.6	11.3	7.9	7.7	1,049.0
(대 기 업)	-2.1	0.1	23.7	-2.3	4.2	2.3	0.3	0.3	176.0
(중소기업)	39.8	4.8	73.3	7.3	68.4	9.1	7.5	7.4	873.0
<개인사업자>	18.5	2.4	37.5	3.4	30.6	4.2	3.4	3.5	416.6
■회사채 순발행	13.5	0.6	13.8	0.5	16.9	1.5	-0.2	2.0	..
■CP 순발행	5.7	0.0	5.6	-1.4	7.5	0.9	-0.2	-1.3	36.0
■주식발행	4.1	0.1	5.9	0.9	24.9	1.8	6.6	1.8	..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9월중 금융시장 동향).

- 9월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수준의 증가 규모를 유지하고, 기타대출이 약간 더 확대되면서 전체 증가 규모가 전월보다 소폭 확대
(21.8월 +6.1조원 → 21.9월 +6.5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매매와 전세거래 관련 자금수요가 지속되면서 전월 수준의 증가 규모가 지속
(모기지론 양도 포함 : 21.8월 +5.8조원 → 21.9월 +5.7조원)
- 기타대출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으로 소폭 증가세 유지
(21.8월 +0.3조원 → 21.9월 +0.8조원)

은행 가계대출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2019		2020		2021				9월말 잔액
	1~9월	9월	1~9월	9월	1~9월	7월	8월	9월	
은행 가계대출	39.4	4.8	69.6	9.6	63.9	9.7	6.1	6.5	1,052.7
■ 주택담보대출	30.6	3.8	49.0	6.7	48.0	6.0	5.8	5.7	769.8
■ 기타대출	8.9	1.0	20.8	3.0	15.9	3.6	0.3	0.8	281.9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1.9월중 금융시장 동향).

□ 금리·환율 : 10월 중순(10.15~10.25일) 금리 상승 & 원/달러 하락 전환

- 국고채(3년) 금리는 한은이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 조치(10.12)에도 불구하고 11월 금리 인상과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최근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이 인플레이 강화를 시사하면서 상승 기조를 유지
(10.12일 1.82% → 10.25일 1.92%, +0.10%p, 2018.11.20일 이후 최고치)
- 원/달러 환율은 10월 들어 중국 헝다 그룹의 파산 우려 등에 따른 금융시장 약세로 추가 상승세를 보인다, 미 의회의 부채한도 일시 상향 합의와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 등으로 위험자산 수요가 회복되면서 하락 전환
(10.12일 1,198.8원 → 10.25일 1,168.4원, -30.4원, 9월 8일 이후 최저치)

주요 금리 및 환율

(%, 원)

	2020				2021				
	2/4	3/4	4/4	1/4	2/4	7월	8월	9월	10.25일
국고채(3년)	0.84	0.85	0.98	1.13	1.45	1.42	1.40	1.59	1.92
회사채(3년,AA-)	2.25	2.19	2.21	2.06	1.97	1.85	1.83	2.05	2.39
CD(91일)	0.79	0.63	0.66	0.75	0.68	0.70	0.92	1.04	1.09
CP(91일)	1.51	1.11	1.09	1.00	0.97	0.97	1.12	1.18	1.23
원/달러	1,203.0	1,169.5	1,086.3	1,131.8	1,126.1	1,150.3	1,159.5	1,184.0	1,168.4
원/100엔	1,116.1	1,112.1	1,054.3	1,027.3	1,022.1	1,048.5	1,057.0	1,058.2	1,037.9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금융감독원.

주 : 기말 종가 기준.

4. 산업별 동향

□ 제조업생산 : 8월중 전년동월비 +10.1%, 전월비 -0.4%

○ 제조업생산은 반도체(전년동월비 36.7%), 1차금속(13.7%), 기계장비(11.2%) 등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화학제품(9.5%), 자동차(6.5%), 섬유제품(8.0%) 등 상당수 업종에서 동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10.1% 증가

- 공업구조별로는 제조업ICT(23.7%)를 비롯해 중공업(11.4%)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경공업(4.5%)에서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

- 전월비 기준으로는 반도체(3.5%)와 자동차(3.3%), 석유정제(3.4%) 등에서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기타운송장비(-2.5%)를 비롯해서 기계장비(-2.1%)와 화학제품(-1.0%) 등에서 동반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0.4% 감소

○ 제조업 생산능력지수(104.7)는 금속가공과 전자부품 등에서 하락세를 보인 반면에, 반도체와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 다수 주력 업종에서 상승세가 이어짐에 따라 전년동월비 0.9% 상승, 전월비 기준으로 0.2% 상승

-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12.3%로 전월보다 8.0%p 상승하고, 재고출하 순환도는 출하 증가 폭이 축소(6.1% → 3.3%, 계절조정 기준 전년동기비)되고, 재고 감소 폭 역시 축소(-2.9% → -0.9%)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4.1%로 전월에 이어 0.2%p 추가 상승

□ 서비스업생산 : 8월중 전년동월비 +4.4%, 전월비 -0.6%

○ 서비스업생산은 숙박·음식점(전년동월비 -5.2%)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도소매(5.6%), 운수·창고(7.7%), 정보통신(7.5%), 보건및사회복지(4.6%), 전문·과학·기술서비스(2.9%)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함에 따라 4.4% 증가

- 전월비 기준으로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1.4%) 등 일부 업종에서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도소매(-0.9%), 운수·창고(-1.3%), 숙박·음식점(-5.0%), 정보통신(-0.8%) 등 상당수 업종에서 감소한 여파로 3개월 만에 감소

- ICT서비스업은 전년동월비 6.6% 증가, 전월비 기준으로는 2.1% 감소

산업별 생산 동향

(2015=100, 전년동기비, %)

	가중치 (2019년)	2019	2020		2021					
			연간	4/4	1/4	2/4	6월	7월*	8월*	전월비*
광공업 (원지수)	10,000	106.7	106.3	112.9	109.8	113.7	116.3	115.7	109.2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4	-0.4	0.0	4.4	12.7	11.5	7.7	9.6	-0.7
제조업 (원지수)	9,484.5	106.6	106.3	112.9	109.1	114.4	117.2	115.8	109.3	-
전년동기비 증감률	-	0.5	-0.3	-0.1	4.4	13.2	11.8	7.3	10.1	-0.4
섬 유	135.0	-5.9	-10.5	-6.2	-4.5	25.0	20.7	12.6	8.0	-7.0
화 학	883.8	-1.3	-3.0	-1.2	2.8	15.7	16.3	11.6	9.5	-1.0
철 강	454.3	-2.2	-6.3	-1.5	-1.9	13.3	20.9	19.3	14.6	-0.9
반도체	1,285.6	11.7	22.7	12.6	21.9	27.2	25.8	34.5	36.7	3.5
컴퓨터, 주변장치	31.3	-8.0	-7.9	0.8	-3.2	8.8	8.9	3.6	-2.9	-10.8
통신, 방송장비	131.5	-2.8	-11.3	2.2	28.7	41.7	21.3	16.0	29.4	16.6
의료, 정밀, 광학	218.0	-11.0	3.9	9.8	17.0	31.7	25.2	24.3	16.8	-8.2
기계, 장비	819.2	-5.9	3.6	3.7	9.4	18.4	17.5	8.4	11.2	-2.1
자동차	981.6	-0.5	-10.0	-2.9	11.2	22.5	20.4	-3.4	6.5	3.3
조 선	206.3	17.6	8.6	-1.3	-15.6	-17.6	-22.3	-21.3	-22.1	-4.4
- 중 공 업	-	0.6	0.6	0.6	5.5	14.4	13.4	9.3	11.4	-0.2
- 경 공 업	-	-0.6	-4.0	-2.9	-0.3	7.4	4.8	-0.7	4.5	-0.9
- 제조업ICT	-	4.8	11.9	8.5	14.0	19.9	16.3	22.1	23.7	6.0
서비스업 (원지수)	1,000	108.4	106.2	110.5	105.9	110.8	113.5	111.0	108.7	-
전년동기비 증감률	-	1.4	-2.0	-2.0	2.2	5.7	4.9	4.0	4.4	-0.6
도소매	211.3	-0.4	-2.6	-1.8	3.1	5.2	3.5	5.8	5.6	-0.9
운수및창고	90.3	0.0	-14.2	-13.1	-2.4	11.0	9.4	6.4	7.7	-1.3
숙박및음식점	61.6	-1.0	-18.5	-24.6	-13.1	1.5	-0.6	-8.0	-5.2	-5.0
정보통신	79.9	3.6	1.5	0.0	2.0	3.9	5.7	7.1	7.5	-0.8
금융및보험	140.9	1.7	14.0	18.7	15.0	9.7	9.9	7.5	6.3	1.0
부동산	31.8	0.5	5.5	0.5	-2.6	5.7	3.1	-3.9	4.3	3.0
전문·과학및기술	71.0	1.4	0.1	0.3	2.1	4.2	3.2	-2.0	2.9	1.4
사업시설관리 등	47.7	2.3	-9.9	-11.7	-3.8	5.6	5.8	4.6	2.6	-1.9
교 육	106.0	-0.4	-4.7	-3.9	0.2	3.0	1.1	2.5	1.3	-1.7
보건및사회복지	94.3	8.1	1.4	-0.4	0.8	3.1	3.8	4.9	4.6	0.2
예술·스포츠및여가	21.7	0.8	-32.6	-33.3	-18.0	20.6	12.0	1.6	6.5	0.3
협회·수리및개인	32.1	-1.6	-8.2	-10.4	-1.8	0.3	-2.4	1.5	-2.6	-5.4
수도·하수및폐기물	11.4	-0.4	3.3	2.3	0.5	6.1	5.2	9.7	5.3	-6.2
- ICT서비스업	-	3.5	4.9	3.4	4.3	4.4	4.9	7.8	6.6	-2.1

자료 : 통계청.

주 : *는 잠정치.

5. 고용

□ 취업자 수 : 9월 전산업 기준 전년동월비 2.5% 증가

○ 9월 전산업의 취업자 수는 농림·어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된 영향에도 제조업에서 감소세 둔화가 이어지고, SOC·기타서비스업에서 증가세 확대가 이어지면서 전년동월비 증가율이 5개월 만에 최고치(1.9% → 2.5%)

-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전월보다 축소(-1.7% → -0.8%)
- 농림·어업의 취업자 증가율이 전월보다 하락(2.4% → 1.5%)한 반면에, SOC·기타서비스업의 취업자 증가폭은 확대(2.6% → 3.2%)
- 건설업의 취업자 증가율이 상당폭 하락(6.1% → 2.7%)한 반면에, 도소매·숙박음식점의 취업자 감소율은 2020.2월 이후 최저(-2.7% → -1.5%)
- 사업·개인·공공서비스및기타 부문은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4.1% → -0.1%)을 제외하고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10.1% → 11.6%)와 교육서비스(2.9% → 5.6%)를 비롯해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4.8% → 5.1%),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3.5% → 3.8%) 등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동반 확대됨에 따라 전체 증가세도 확대(3.7% → 4.3%)
- 실업률은 계절조정 기준 3.0%로 다시 상승

산업별 고용 동향

(천명,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전 산업	27,123	26,904	26,369	27,467	27,645	27,550	27,637	27,648	27,603	27,683
전년동기비	1.1	-0.8	-1.4	2.3	2.1	2.3	2.2	2.0	1.9	2.5
농림·어업	4.1	3.6	-0.2	0.2	1.5	-0.2	1.0	0.7	2.4	1.4
제조업	-1.8	-1.2	-0.6	0.1	-0.8	0.4	-0.2	0.1	-1.7	-0.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6	-1.0	-1.7	2.9	2.8	2.9	2.7	2.5	2.6	3.3
건설업	-0.7	-0.2	1.7	7.0	4.4	6.6	7.0	4.6	6.1	2.7
도소매·숙박음식점업	0.0	-5.3	-6.9	-2.4	-2.6	-2.3	-2.7	-3.5	-2.7	-1.5
전기·운수·통신·금융	0.2	0.7	1.8	5.2	6.9	4.4	5.8	6.2	6.3	8.3
사업·개인·공공서비스등	3.5	0.9	-0.4	4.3	4.1	4.6	3.9	4.2	3.7	4.3
실업률 (계절조정, %)	3.8	4.0	4.4	3.7	3.0	3.8	3.7	3.3	2.8	3.0

자료 : 통계청.

6. 수출입

□ 9월 수출 16.7% 증가, 수입 31.0% 증가, 무역수지 흑자 42억 달러

○ 지난 9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6.7% 증가한 558억 달러, 수입은 31.0% 증가한 516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수출이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전년동월비 -2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 중간재 품목들과 디스플레이·무선통신 기기·컴퓨터 등 IT관련 품목들을 중심으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월별 무역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고치 규모를 기록

- 수입도 원유와 유연탄,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차산품 수입이 56.6%나 증가한 데다, 중간재 수입도 40.4% 증가하는 등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전월과 동일한 규모가 유지

* 원유수입은 도입단가(74.6달러/배럴)가 전년동월비 66.2% 상승하고, 도입물량이 3.3% 감소하면서 전체 금액은 60.7% 증가한 약 58억 달러를 기록

수출입 동향

(억 달러,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수출	5,422 (-10.4)	5,128 (-5.4)	1,464 (12.5)	1,568 (42.1)	1,645 (26.5)	507 (45.6)	548 (39.7)	555 (29.7)	532 (34.7)	558 (16.7)
수입	5,033 (-6.0)	4,676 (-7.1)	1,365 (12.3)	1,491 (37.5)	1,568 (37.5)	478 (38.0)	504 (40.7)	536 (38.1)	516 (44.0)	516 (31.0)
무역수지	389	452	99	77	77	29	44	18	16	42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중간재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 증가 전인

○ 반도체 :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따른 모바일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메모리반도체 고정거래가격의 높은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파운드리 업계의 가격 인상 검토 등 호조세가 유지되면서 수출이 15개월 연속 증가세

- **자동차** : 친환경차·SUV 등 국산 차종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나,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이어지고 있으며, 추석 연휴로 인해 다수 생산 시설이 휴무에 돌입한 데 따른 영향으로 수출이 9개월 만에 감소 전환
- **자동차부품** :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의 심화로 전세계적인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내 부품 제조사들이 가동률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한국·중국의 명절 영향으로 수출이 2020.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
- **선박류** : 물동량 증가와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발주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수주-인도 간의 시차 영향으로 수출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 데다, 9월 통관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수출이 4개월 만에 감소 전환
- **디스플레이** : 국내 LCD 생산 감축에 따른 출하량 감소에도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는 OLED TV 시장의 확대와 OLED를 탑재한 신규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연이은 출시 등에 힘입어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세
- **무선통신기기** : 국내 기업들의 신규 폴더블폰이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데다, 해외 제품에 투입되는 부품 수출이 증가하면서 특히 對 중국 수출이 대폭 성장하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11개월 연속 증가세
- **철강** : 철광석 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철강재 수출단가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건설·자동차·기계 등 전방산업에서의 수요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한 데 힘입어 수출이 9개월 연속 증가세
- **섬유** : 최대 수출시장인 동남아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추석 연휴가 9월에 있으면서 아세안·미국 등지로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수출이 7개월 만에 감소
- **석유제품** : 산유국들의 감산 완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미 지역의 허리케인 영향으로 석유 증산 여력이 제한적인 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제품 수출단가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수출도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석유화학** : 비대면 생활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자동차 등 전방산업들의 경기 회복으로 인한 합성수지·합성고무 수요가 호조세를 보이고,

국제유가 등 수출단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수출도 9개월 연속 증가세

- **일반기계** : NC선반·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 주문이 크게 증가하고, 세계 주요국들이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으로의 건설기계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세
- **가전** :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2020년 9월중 연중 최고 수출액을 기록한 영향과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 수 하락으로 전체 수출이 15개월 만에 감소
- **컴퓨터** : 재택근무와 원격수업 등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소비자용 SSD 수요가 이어지는 데다, 기업용 SSD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고 사양 제품의 점유율 확대가 이어지면서 수출도 7개월 연속 증가세

산업별 수출 동향

(전년동기비, %)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5월	6월	7월	8월	9월
자동차	5.3	-13.1	31.4	74.8	6.5	93.7	62.4	12.3	16.9	-6.1
자동차부품	-2.5	-17.3	5.6	123.1	14.9	182.1	108.0	34.9	22.2	-5.2
선박류	-5.2	-2.0	28.3	11.9	-1.9	-15.0	41.3	9.4	38.2	-40.5
일반기계	-1.9	-8.9	-1.4	21.2	15.9	25.7	21.2	18.2	23.4	7.9
철 강	-8.6	-14.5	7.5	50.6	45.3	62.7	51.6	41.5	53.5	41.7
석유화학	-14.8	-16.4	26.5	80.3	63.9	93.7	66.9	60.2	81.6	52.0
석유제품	-12.2	-40.6	-16.6	112.6	69.8	169.6	83.7	75.8	54.5	79.2
섬 유	-8.0	-13.3	-8.3	46.0	9.9	57.0	36.4	17.4	19.0	-3.6
가 전	-3.8	0.7	15.8	66.5	11.7	89.2	47.5	29.7	12.3	-4.1
무선통신기기	-17.6	-6.4	21.6	38.5	25.8	41.2	3.4	5.0	62.1	19.9
컴퓨터	-20.6	57.2	2.8	8.9	34.0	7.5	16.5	26.4	26.1	49.4
반도체	-25.9	5.6	14.0	29.7	36.3	24.5	34.4	39.6	42.6	28.2
디스플레이	-17.0	-12.2	16.3	36.0	25.2	38.6	28.2	38.0	23.7	17.3

자료 : 한국무역협회.

부록	2022년 한국경제 전망 : 3% 성장을 위한 과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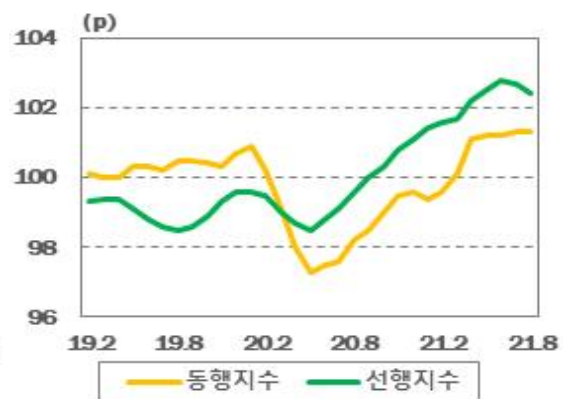
현대경제연구원(2021.9.27일)

- 최근 국내경제는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내수 충격과 중국발 리스크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확대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0년 7월과 8월에 101.3p로 회복한 가운데 경기 방향을 시사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0년 6월을 고점으로 7월과 8월에는 각각 102.7p와 102.4p로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고조

〈 국내경제 성장률 추이 〉



〈 경기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



□ 대외경제 여건

- (경기) 선진국이 경기부양책 지속과 백신 공급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되고, 세계교역이 확대되면서 신흥국 역시 회복되는 모습이나, 2022년에는 G2 분쟁 심화와 중국경제 리스크, 코로나 재확산 및 긴축 전환, 공급망 혼란 등 하방 리스크가 상존해 회복 속도가 차별화될 전망
 - 특히 중국은 부동산 부실과 전력난, 기저효과 등으로 큰 폭 둔화가 예상
- (유가) 델타 변이 확산과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일시적 공급 부족으로 크게 상승하였고, 2022년에는 재고 감소에 따른 공급 확대 등으로 하락세가 예상되나, 수요 압력과 산유국 감산 공조 체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60달러대 초·중반의 고수준이 전망
- (환율) 달러화는 빠른 경기 회복과 테이퍼링 가시화로, 유로화는 역내 경기 회복 기대와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 확대로 모두 강세를 보였고, 2022년에는 테이퍼링 종료와 조기 금리인상 기대감에 따른 달러화 강세, 대미 통화정책 조정 시차와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고려한 유로화 약보합, 기시다 내각의 아베노믹스 계승에도 달러화 강세로 인한 엔화 약세가 예상

□ 한국경제 전망

- (성장) 2022년중 경기 회복 흐름이 계속되나, 2021년보다 낮은 2.8% 예상
- (소비) 소비활동 제약 완화와 소비심리 개선,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중심 정책은 긍정적 요인이거나,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노동시장 및 가계소득 개선세 지연,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이 부정적으로 작용
- (투자) 건설투자는 SOC와 지역균형발전 투자 확대, 신규주택 공급계획 등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설비투자는 IT·신산업 위주의 견조한 성장 예상
- (수출) 대외수요 확대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주요국의 긴축 전환과 개도국 코로나19 불확실성, 중국경제 둔화와 GVC 차질 등이 하방 리스크
- (물가) 소비 확대에 따른 수요측 상승 압력이 있으나,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 가능성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이 물가상승률 확대를 제한
- (고용) 백신 접종 확대로 고용시장 개선이 유지되나, 2020년 기저효과 완화와 고용유지지원금 축소,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취업자수 증가세는 둔화

〈표〉 한국경제 전망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하반기 ^e	연간 ^e	상반기 ^e	하반기 ^e	연간 ^e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0.9	3.9	3.6	3.8	3.0	2.7	2.8
	민간소비(%)	-5.0	2.4	3.8	3.1	2.8	2.6	2.7
	건설투자(%)	-0.4	-1.6	2.9	0.7	3.2	2.3	2.8
	설비투자(%)	7.1	12.3	6.0	9.1	1.6	3.9	2.7
대 외 거 래	경상수지(억달러)	753	443	450	893	368	411	779
	무역수지(억달러)	449	180	207	387	184	218	402
	수출 증가율(%)	-5.5	26.1	18.0	21.8	1.0	0.9	1.0
	수입 증가율(%)	-7.1	24.1	26.3	25.2	0.9	0.6	0.8
소비자물가 상승률(%)		0.5	1.8	2.3	2.0	1.6	1.5	1.6
취업자수 증감(만명)		-22	12	43	28	30	18	24

□ 시사점

- (단기) 경기 회복세 안착 및 3%대 성장 달성을 위해서 경기 친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K자형 회복(업종·규모별로 상이)과 대외 돌발 리스크(중국발 리스크, 신흥국 긴축발작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중장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위드 코로나(with-Corona) 전략의 추진은 물론, 규제개혁과 투자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면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10.25) ● 8월 경기선행지수 (수 정 치)	(10.26)  10월 소비자신뢰지수  21.3분기 실질GDP (속 보 치)	(10.27) ● BOJ 통화정책회의  9월 내구재수주(잠)  10월 소비자동향조사	(10.28) ● 9월 소매판매(잠) ● 9월 무역수지(수)  10월 경제체감지수  ECB 통화정책회의  21.3분기 실질GDP (예 비 치)	(10.29) ● 9월 산업생산(잠) ● 9월 실 업 률  10월 소비자물가(예)  21.3분기 실질GDP (예 비 치)  9월 개인소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  9월 산업활동동향
(11.1)  10월 ISM 제조업지수  10월 수출입통계	(11.2)  연준 FOMC(11.3일)  10월 소비자물가	(11.3)  9월 실 업 률  10월 ISM 비제조업지수	(11.4)  9월 무역수지	(11.5)  9월 소매판매  10월 고용보고서
(11.8) ● 9월 경기선행지수 (잠 정 치)			(11.11)  10월 소비자물가  10월 소비자물가  10월 고용동향	(11.12)  9월 산업생산
(11.15)  10월 산업생산  10월 소매판매  10월 고정투자 ● 21.3분기 실질GDP (잠 정 치) ● 9월 산업생산(수) ● 9월 소매판매(수)  9월 수출입통계	(11.16)  21.3분기 실질GDP (수 정 치)  10월 산업생산  10월 소매판매	(11.17) ● 10월 무역수지(잠) ● 9월 기계수주  10월 소비자물가(수)	(11.18)  10월 경기선행지수	(11.19) ● 10월 소비자물가  10월 생산자물가